

【독서 권장 2019】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연말 행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1년간 읽은 책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사 부문으로는 『세키하라 연판장』, 『토하쿠』, 『피의 일본사』(아베 류타로), 『노보우의 성』, 『일본을 만든 12명』(사카이야 타이치)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의 일본사』는 1300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역사를 46개의 단편 소설에 의거 부감한 것으로 11월 불가리아를 방문했을 때 기내에서 읽었습니다. 각각의 사실은 원래 알고 있었지만, 역사의 한 부분에 작가가 독자적인 스토리를 붙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그 상상력(창조력)은 감탄하게 했습니다.

시사, 사회 부문에서는 『규범은 역사에 있다』, 『숙명에 살며 운명에 도전한다』, 『총리의 기량』(하시모토 고로), 『일본인의 자랑』(후지와라 마사히코), 『일본인으로서 이것만은 알아둬야 할 것』, 『일본인이 모르는 세계와 일본의 견해』, 『일본인의 마음과 모양』(나카니시 테루마사), 『세계지도를 다시 읽음』(가타오카 신이치)을 한 번 읽은 책도 있고, 반복해서 읽은 책도 있습니다.

하시모토 고로 씨와는 일전에 오카야마에서 강연이 있었을 때 20분 정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마음가짐에 대해

시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복지를 생각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회를 지탱해왔던 고령자를 공경하고 그 존엄성을 지지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힐링 부문에는 『어젯밤 카레, 내일의 빵』(키자라 이즈미), 『어제가 없으면 내일도 없다』(미야베 미유키), 『펭귄은 하늘을 바라본다』(야에노 토마), 『너는 착한 아이』(나카와키 하츠에), 『꿀벌과 원뢰』(온다 리쿠).

그리고 『시민의 동화상』 제 35 회 입상작에서 『작은 용의 날개』(타카오카 메구미 씨), 『들여다보니...』(나카가와 유키 씨).

오카야마 시장이 되고 오카야마시 명예시민인 아동문학 작가 츠보타 조지 씨를 현창하는 오카야마시 문학상 관계로 아동문학에 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최근에는 힐링 부문의 책도 꽤 재미있다고 생각되어 읽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카야마 교쿠도 병원의 도이 아키히로 원장님의 에세이 『원장님의 혼잣말(제 1 권)』은 선생님의 인품 자체가 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신 제 2 권, 제 3 권은 아쉽게도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읽어본 책으로는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유아교육의 경제학』(제임스.J.헉멘)

평소 잘 찾지 않는 장르여서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흥미진진한 책이 있다면 꼭 구해서 읽어보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